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2, 84~97.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2.8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이 응 택**

광주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와 두 변인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2)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총 1,998명이다. 분석은 잠재조절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LMS)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지지 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지지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수준 점검은 이들의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조절효과, MAPS2

* 본 논문은 2026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이응택/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조교수/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Tel: 062-670-2464/E-mail: samneng@hanmail.net

Ⅰ. 서론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2%, 2021년 2.3%, 2024년 1.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1년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 이러한 수치는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폭력 이면에 숨겨진 차별과 갈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응의 실패가 아닌 관계적 소외로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며(여성가족부, 2025), 학교폭력으로 인한 또래와의 관계 단절은 학업 및 교육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인아, 2020; Hutzell & Payne, 2018; Peguero, 2008; Peguero, Zavala, Shekarkhar & Walker-Pickett, 2021; Sobba, 2019).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지지 자원이 부족하고, 언어적 한계 및 정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강효정, 2016).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심화시키지만(Donnellan et al., 2005)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와 같은 행동을 감소시키고(이숙현, 한창근, 2019; Trzesniewski et al., 2006), 삶의 만족도(조화진, 2020)와 진로결정(민예지, 강현아, 2021) 등의 청소년기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는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일반 청소년(염동문, 임채영, 정현태, 2015)과 다문화 청소년(이미화, 최진아, 2021)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적응(이은혜, 박화옥, 2014; 이응택, 2025), 우울(이한주, 2017), 행복감(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7)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거나, 학교폭력 피해와 비행(이병도, 이창배, 박현민, 서우승, 2019) 및 자해행동(유지희, 2026)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와 부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의미 있는 역할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문제 예방을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인권인식(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6)이나 스트레스(염동문 외, 2015) 등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환경적 지지체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기제이기도 하다(Rosenberg, 1965).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자율성을 추구하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또래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정서적 지지 자원으로 부모를 찾는다(Delgado, Serna, Martínez & Cruise, 2022). 국내 선행연구 역시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모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며(안혜진, 2025),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라는 위기상황을 경험할 때 안정을 되찾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결정적 요인으로 부모의 공감과 격려와 같은 부모지지를 강조하고 있다(방기연, 2014; 홍지영, 유정이, 2013).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김지형, 윤현정, 2025)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수준이 일반 청소년보다 낮다는 결과

도 보고된 바 있다(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이러한 특수성은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 이후 또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모는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자원이 된다. 즉, 다문화 청소년에게 부모지지는 또래지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나는 심리 및 행동 문제의 매개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연구해 왔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는 조절효과를 지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

학교폭력 피해는 자아존중감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염동문 외, 2015; 이한주, 2017; Wang, 2011). Mullan 등(2023)은 메타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부적 상관관계로 제시하였으며, Tsaousis(2016)는 학교폭력 가해와 자아존중감의 상관보다는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학교폭력 가해보다는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허성호, 박준성과 정태연(2009)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인식은 더 부정적이며, 자아존중감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응택(2025)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일시적인 피해경험보다는 지속적인 피해경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희진, 2014; 도기봉, 오주, 신정인, 2011)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Choi와 Park(2021)은 학교폭력 피해로 저하된 자아존중감은 향후 재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일반 청소년보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으며(백지숙 외, 2014), 일반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최유석, 임지영, 2023) 다문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김영미, 2024). 이는 다문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자아존중감이 더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기존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부적 관련성을 검증하고, 두 변인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변인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백예은, 정혜원, 2021).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가치 있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Cobb, 1976).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조연, 손은령, 2021). 신소영과 권성연(2022), 조연과 손은령(202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요인 중 부모지지와 또래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또래지지보다 부모지지가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며(백지숙 외, 2014), 부모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김지형, 윤현정, 2025) 이들에게 부모지지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선정, 2025). 또한,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지지는 자녀의 안정적인 회복과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방기연, 2014; 홍지영, 유정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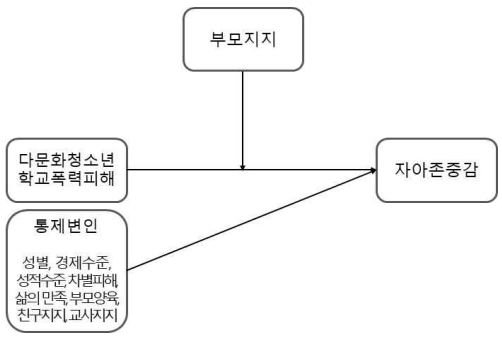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이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통해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Cohen & Wills, 1985). Davidson과 Demaray(2007)는 학교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설명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지지가 두 변인의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심혜인, 김동현과 곽대경(2020)은 여자 청소년의 부모방임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대로, 김재엽, 최윤희와 장대연(2019)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사고를 낮추는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상황에서 부모지지는 심리적 문제를 완충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두 변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탐색하거나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염동문 외, 2015)나 문제해결 대처(Lin, Liu & Zhou, 2015)와 같은 매개변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학교폭력 피해로 어떤 구조적인 경로를 거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부모지지가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MAPSⅡ)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는 2019년 초등학교 4학년 2,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현재까지 6차 조사까지 공개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중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차 연도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1,999명이었으나 데이터 결측치 1명을 제외한 1,998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남학생은 1,031명(51.6%), 여학생은 967명(48.4%)으로 확인되었다.

3. 측정도구

1)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3차 연도 자료 중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질문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내용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놀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은 '한 번도 없었다' 0점, '한 달에 1~2번 있었다' 1점, '한 주에 1~2번 있었다' 2점, '거의 매일 있었다' 3점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번도 없음' 0점, '1번 이상 있음' 1점으로 더미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더미변수로 재구성한 이유는 데이터의 극단적 분포 경향 때문이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5.626~9.853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36.163~107.996으로 나타나 정규성 분포에서 벗어나 연속형 변수가 아닌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2) 부모지지

부모지지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3차 연도 자료 중 부모지지 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등이다. 점수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부모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6으로 확인되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3차 연도 자료 중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이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46으로 확인되었다.

4) 통제변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3차 연도 자료 중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통제변인을 선정하였다. 통제변인은 성별, 경제수준, 성적수준, 차별경험, 삶의만족,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처리하였고, 경제수준과 성적수준은 각 1문항으로 점수가 높으면 경제수준과 성적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다. 차별 피해경험은 차별 피해 경험 여부를 질문한 1문항을 활용하였고, 차별경험 없음=0, 차별경험 있음=1로 더미처리하였다. 삶

의 만족도는 3문항, 친구지지 3문항, 교사지지 3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각 변인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과 MPLUS 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각 변인의 빈도와 평균(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과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조절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LMS)을 활용하였다. 잠재조절구조방정식은 총 2단계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만 투입한 모형이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는 로그우도비 검증(LRT) 공식인 $-2\triangle LL = -2(LL_0 - LL_1)$을 통해 파악하였다. LMS 모형은 기존 구조방정식의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CFI, TLI, RMSEA, SRMR)를 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Model 0)과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모형(Model 1) 간의 로그우도(Log-likelihood; LL) 값 및 정보준거(AIC, BIC)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김수영, 2017; Klein & Moosbrugger, 2000). 이 차이 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므로 자유도 차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AIC 및 BIC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한 것을 의미하여 두 모형 간 AIC와 BIC 값을 확인하여 더 우수하고 간명한 모형을 확인하였다(김수영, 2017).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분석대상은 총 1,998명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1번 문항에서 6번 문항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4%로 나타났고, 부모지지 평균(표준편차)은 3.240(.499),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은 3.252(.536)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기술통계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성별(1=남)	0.00	1.00	.516	.500
경제수준	1.00	5.00	2.720	.649
성적수준	1.00	5.00	3.414	.799
차별(있음=1)	0.00	1.00	.015	.122
삶의만족	1.00	4.00	3.215	.544
친구지지	1.00	5.00	3.856	.683
교사지지	1.00	5.00	3.827	.729
학폭(있음=1)	0.00	1.00	.104	.305
부모지지	1.00	4.00	3.240	.499
자존감	1.00	4.00	3.252	.536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부모지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상관은 각각 부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상관은 정적으로 나타났다.

3. 측정모형 검증

<표 2> 상관관계

구분	성별	경제	성적	차별	삶의 만족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폭력	부모지지
경제	−.002								
성적	.042	.078**							
차별	−.012	.009	−.028						
삶의 만족	.090***	.081***	.274***	−.107***					
친구지지	−.125***	.053*	.307***	−.008	.327***				
교사지지	−.030	.042	.366***	.014	.315***	.506***			
학교폭력	.047*	−.013	−.071**	.201***	−.162***	−.091***	−.040		
부모지지	.005	.078***	.270***	−.048*	.451***	.339***	.375***	−.082*	
자존감	.037	.060**	.342***	−.058*	.637***	.396***	.400***	−.140**	.479**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잠재변인 간 상관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때 분석은 독립변인인 학교폭력 피해경험 문항이 더미변수로 생성되어 있어 WLSMV(weighted least squares mean and variance adjuste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182.435(df=87, p<.001)로 나타났으나 CFI .986, TLI .984, RMSEA .023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학교폭력 피해 .805~.879, 부모지지 .629~.800, 자아존중감 .757~.845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부모지지 잠재변인의 상관은 −.132(p<.01),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잠재변인 간 상관은 −.243 (p<.001),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 잠재변인 간 상관은 .554(p<.001)로 확인되었다.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AVE는 .71(√AVE=.84), 부모지지의 AVE는 .58(√AVE=.76), 자아존중감의 AVE는 .66(√AVE=.81)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학교폭력 피해와 부모지지 −.132,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 −.243,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 .554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비정규성에 강건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MLR)을 적용하였으며, 잠재변인 간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LMS(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을 투입하고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모형을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지지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과 투입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을 분석한 결과, *Log-likelihood* = −13886.496(df=49)으로 확인되었고, AIC는 27870.991, BIC는 28145.387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모형을 분석하 결과, *Log-likelihood* = −13877.285(df=50)로 확인되었고, AIC는 27854.570, BIC는 28134.566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 간 $\Delta(-2LL)$는 18.422로 나타났으며, 이는 χ^2 분포(df =1)의 임곗값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또한 AIC 및 BIC 가 모두 감소하여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 2가 모형 1에 비해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의 추정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호작용 변인(학교폭력 피해경험×부모지지)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절효과 모형의 회귀계수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t	B(S.E)	t	B(S.E)	t
학교폭력(x)		−.030(.006)	−4.561***	−.007(.005)	−1.324	−.006(.006)	−1.000
부모지지(w)		.693(.048)	14.389***	.251(.039)	6.384***	.245(.038)	6.544***
X × W						.058(.019)	3.055**
통제변인	성별(1=남)			.005(.018)	.291	.005(.018)	.255
	경제			−.007(.014)	−.501	−.005(.014)	−.358
	성적			.067(.014)	4.657***	.070(.014)	4.969***
	차별(있음=1)			.034(.093)	.364	.070(.090)	.785
	삶의만족			.462(.024)	19.516***	.458(.023)	19.657***
	친구지지			.086(.019)	4.567***	.086(.019)	4.577***
	교사지지			.080(.017)	4.525***	.077(.017)	4.516***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모지지를 −1표준편차(−SD), 평균(0), +1표준편차(+SD)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지지가 낮은 수준(−SD)에서는 단순기울기의 회귀계수가(B=−.064, p< .001)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모지지 수준이 평균(0)일 때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지지가 높은 수준(+SD)에서는 기울기의 회귀계수(B=.051, p< .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간 기울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B=.115, p<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지지가 낮은(−SD)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만, 부모지지가 높은(+SD)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단순 기울기

부모지지	B	S.E	t
−SD	−.064	.018	−3.462***
0	−.006	.006	−1.000
+SD	.051	.021	2.441*

Ⅴ.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명하고, 두 변인의 관계를 부모지지가 조절하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한주, 2017)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존재한다는 연구(염동문 외, 2015)와 다른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매개변인에 의한 설명이다. 김영미(2023)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학교생활, 교사관계, 학교성적, 부모의 통제보다 행복감, 또래관계, 부모관계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예지(2020)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우울과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만족이나 또래관계 등의 변인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 측정 방식 및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응택(2025)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일시적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의 빈도, 강도, 그리고 지속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로만 측정하여 학교폭력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한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빈도와 지속성을 깊이 있게 고려함으로써 두 변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부모양육태도가 조절한다고 보고한 박성원과 윤현정(202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남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는 부모관계에 의해 조절된다고 설명한 전신현(2018)의 연구와 맥락이 비슷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중간 수준일 때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중감 수준을 감소시키고, 부모지지가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지지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아존중감 손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로 부모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문제는 부모의 방임이나 방치로 인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나는 우울의 문제 원인을 자아존중감으로 설명한 연구(이한주, 2017)를 고려할 때, 부모지지가 낮으면 자아존중감 문제가 심화되면서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부모지지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다양한 문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다. 부모는 자녀의 관심 수준에 따라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낮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한계는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더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남부현과 김경준(2018)은 이주민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언어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다문화 청소년 부모를 위해 다문화 전문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들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지 수준과 부모가 지각하는 지지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지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 다문화 청소년 개인 상담과 부모상담 초기면접 과정에서는 부모의 지지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매뉴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접근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단분석을 통한 인과적 관계 규명이 중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한 인과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로만 살펴봄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의 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폭력 피해 양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지지를 각 3문항으로 사용하여 개념적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문제를 예방하는 데 부모지지가 중요함을 밝혔으며, 부모지지 수준이 매우 낮을 때 자아존중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강효정 (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방안. 다문화와 인간, 5(2), 121-144.

김선정 (2025).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중

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2), 177-200.
김수영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영미 (2023).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및 영향요인 검증. 아동학회지, 44(1), 57-68.
김영미 (2024).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31(2), 1-10.
김재엽, 최윤희, 장대연 (2019).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중복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5, 107-133.
김지형, 윤현정 (2025).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궤적과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6(4), 5-32.
김희진 (2014).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문화예술교육연구, 9(6), 133-156.
남부현, 김경준 (2018).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 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29(2), 5-34.
도기봉, 오주, 신정인 (2011).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역량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1), 149-174.
민예지, 강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135-159.
박성원, 윤현정 (202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정신간호학회지, 32(4), 471-481.
방기연 (2014).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학교폭력 피해 극복 학생 어머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03-428.
백예은, 정혜원 (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5), 275-304.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지역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2.
신소영, 권성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관계분석. 평생학습사회, 18(1), 69-91.
심혜인, 김동현, 곽대경 (2020).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4(1), 101-121.
안혜진 (2025).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8), 425-437.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염동문, 임채영, 정현태 (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4), 401-423.
유지희 (2026).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3(1), 176-198.
이미화, 최진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1, 69-87.
이병도, 이창배, 박현민, 서우승 (2019).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307-344.

이숙현, 한창근 (2019).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집단 간 다집단 분석. 보건사회연구, 39(1), 293-333.

이은혜, 박화옥 (2014).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399-426.

이응택 (2025).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적응의 관계: 일시 피해와 지속 피해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82, 171-196.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6).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피해 인식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11), 37-44.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7).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35-43.

이한주 (2017).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연구: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0(3), 274-283.

임인아 (2020).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8(1), 243-267.

전신현 (2018). 청소년 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및 친구관계의 조절효과: 성별에 따른 두 대립가설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26(3), 171-191.

조연, 손은령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323-339.

조화진 (2020).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지역사회인식과 삶의 만족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0), 1-27.

최유석, 임지영 (202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자율성, 미디어기기 과다사용 및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32(2), 201-217.

허성호, 박준성, 정태연 (2009). 집단따돌림이 피해청소년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4), 279-299.

홍예지 (2020).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화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1(3). 251-275.

홍지영, 유정이 (2013).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107-145.

Choi, B., & Park, S. (2021). Bullying Perpetration, Victimization, and Low Self-esteem: Examining Their Relationship Over Tim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0*(4), 739-752.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e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avidson, L. M., & Demaray, M. K. (2007).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between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distress. *School Psychology Review, 36*(3), 383-405.

Delgado, E., Serna, C., Martínez, I., & Cruise, E. (2022).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3), 1064.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utzell, K. L., & Payne, A. A.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school avoidance: An examination of direct associations, protective influences, and aggravating factors. *Journal of School Violence, 17*(2), 210-226.

Klein, A. and Moosbrugger, H. (200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Latent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LMS Method. *Psychometrika, 65,* 457-474.

Lin, L.-l., Liu, J.-s., & Zhou, Y. (2015). Rel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during middle childhood: The mediating roles of coping strategies.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1), 137-140.

Mullan, V. M. R., Golm, D., Juhl, J., Sajid, S., & Brandt, V.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sation, self-esteem,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18*(3), e0282224.

Peguero, A. A. (2008). Is immigrant status relevant in school victimization? Using a multilevel approach to unite adolescent school victimization and immigrant status.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6*(4), 392-409.

Peguero, A. A., Zavala, E., Shekarkhar, Z., & Walker-Pickett, M. (2021). School victimization, immigration, dropping out, and gender disparit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5-6), 2703-273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obba, K. N. (2019). Correlates and buffers of school avoidance: A review of school avoidance literature and applying social capital as a potential safeguard.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4*(3), 380-394.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81-390.

Tsaousis, I. (2016).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to bullying perpetration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1,* 186-199.

Wang, C. (2011).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eer victimiza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A test of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투고일자: 2026. 4. 15.
심사일자: 2026. 5. 26.
게재확정일자: 2026. 6. 8.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2, 84~97.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2.84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EungTaek Lee

Gwangj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 were used, incorporating a total of 1,998 participant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LMS) modeling was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elf-esteem.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for adolescents with below-average levels of parental suppor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However, for those with above-average levels of parental support, self-esteem did not decrease even after they experienc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on self-esteem is contingent on levels of parental support. Consequently, assessing the level of parental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ing school bullying is a critical factor in preventing their self-esteem problems. The study discussed practical interven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Self-Esteem, Parental Support, Moderating Effect, MAPS2